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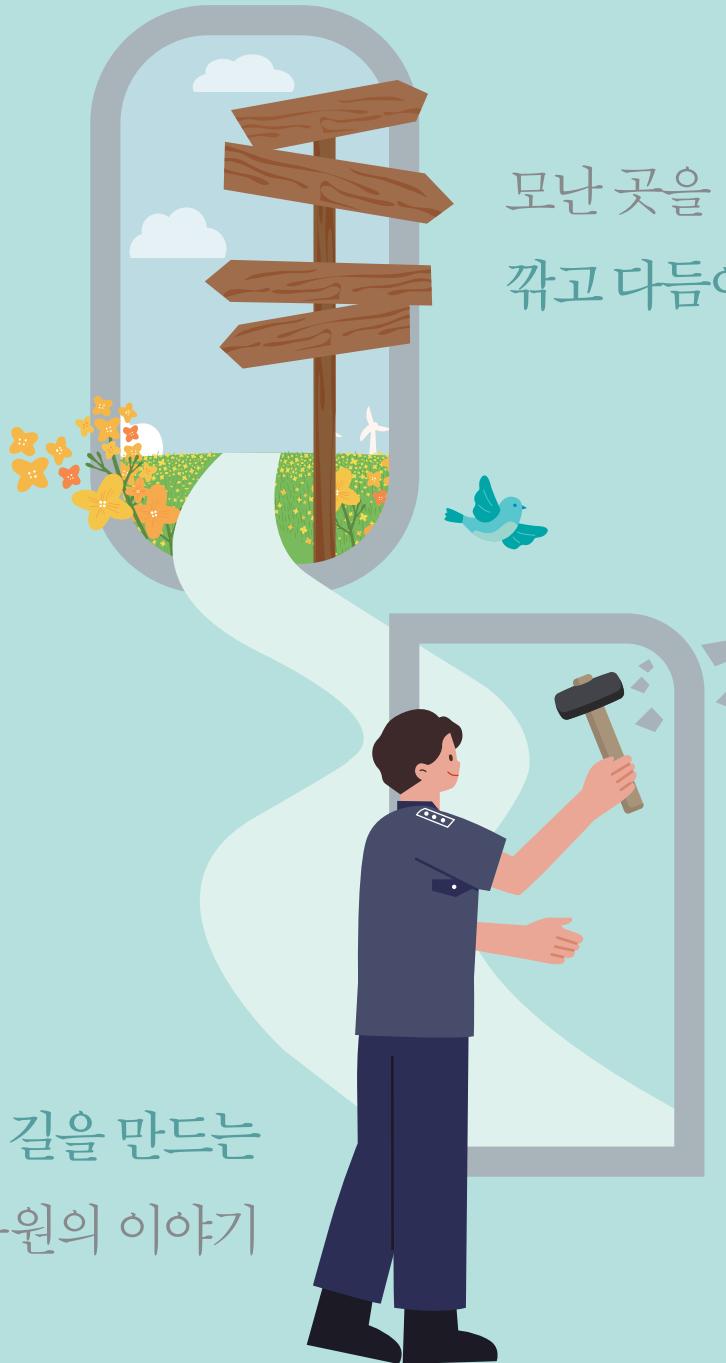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6

Vol. 553
2022 June

모난 곳을
깎고 다듬어

새 길을 만드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



Re: Cover



흔들림을 발판 삼아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발판 삼아
마음을 새로이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 6월호에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교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CONTENTS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광주교도소
- 12 생각의 접점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저 산의 흔들바위처럼
광주교도소
- 14 응원의 선물
외로움과 근심을 비우고 동료애와 보람을 채우다
광주교도소 보안과 미결3팀

- 18 묻고 답하다
주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주교도소 교감 이재영 & 교사 김재훈
- 22 교정의 가치
독을 우유로 바꾸는 자애로운 손길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표 스님
- 24 취미의 공유
무도로 하나 되는 소문난 검도명가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 오검회

- 28 전문가에게 묻다
요가 테라피를 경험하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 심우환
& 나디아요가 강사 신여은

- 32 나도 패션왕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스타일링으로 여름을 준비하다
수원구치소 교감 윤주성
- 36 교정 안에서
고산동의 민들레
의정부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이바른
- 38 교정의 일기
문맹 어머니
수원구치소 교감 이우현

- 40 새로운 만남
CEO로 거듭난 '프로 도전리'
가수 유빈
- 44 여행 속 휴식
카메라가 사랑하는 풍경
초여름 '인생 샷'~찰칵
- 48 문화가 중개
MZ세대의 추억은 어떻게 현재로 소환됐나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싸이월드,
포켓몬빵 열풍
- 50 맛의 탐방
더위를 물리칠 시원한 별미
냉면
- 52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②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6월호 Vol.553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6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mind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인권 존중 수용 관리
공감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교도소



인권 존중과 정의가 바탕이 된 교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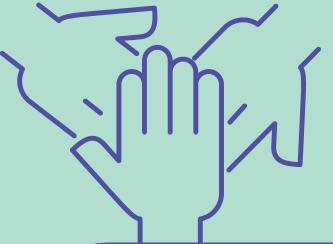
광주교도소는 동명동, 문흥동 시대를 거쳐
2015년 삼각산 아래 삼각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인권 존중의 이념 아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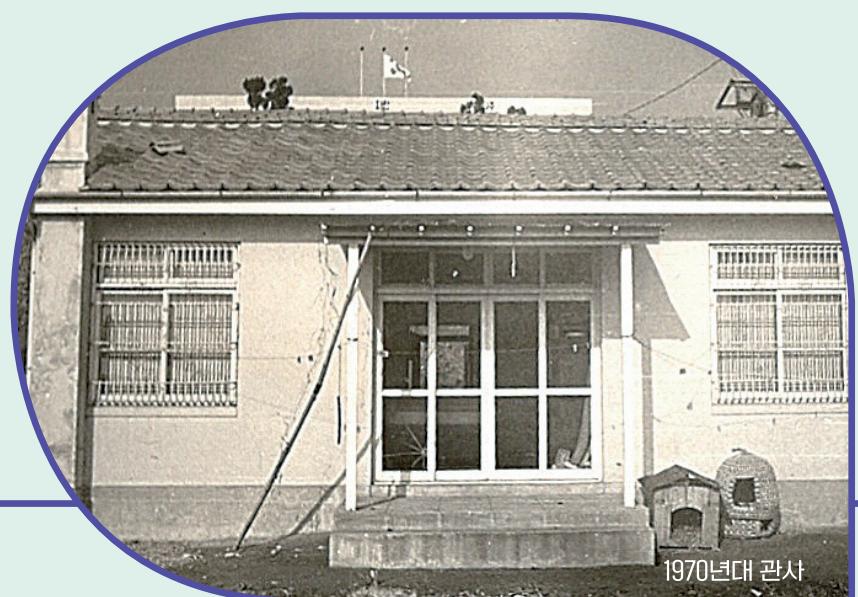
광주·전남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정시설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지역민들과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이 있는
교정을 실현하다

광주교도소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용 관리를 통해
사회가 공감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갑니다.



“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고
기본에 충실합니다.

”





1960년대 수용자 교도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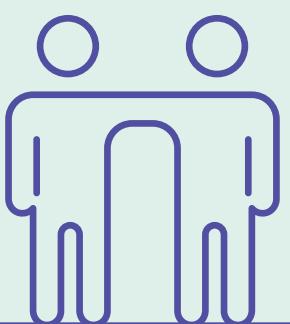


열린 교정행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광주교도소
법무부 가온 직장어린이집



재범 방지와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다

광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연계형 직업 훈련과 교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방 작업장을 운영해 지역 중소기업과도 상생합니다.



“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과 기술 습득을 통한
교정교화를 이룹니다.



1962년 교정교화 공연

광주교도소 외부 정문 앞에는 직장 보육시설인 법무부 가온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원한 이곳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광주교도소 직원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도 함께 보육합니다.





1963년 교정공무원 모범 가족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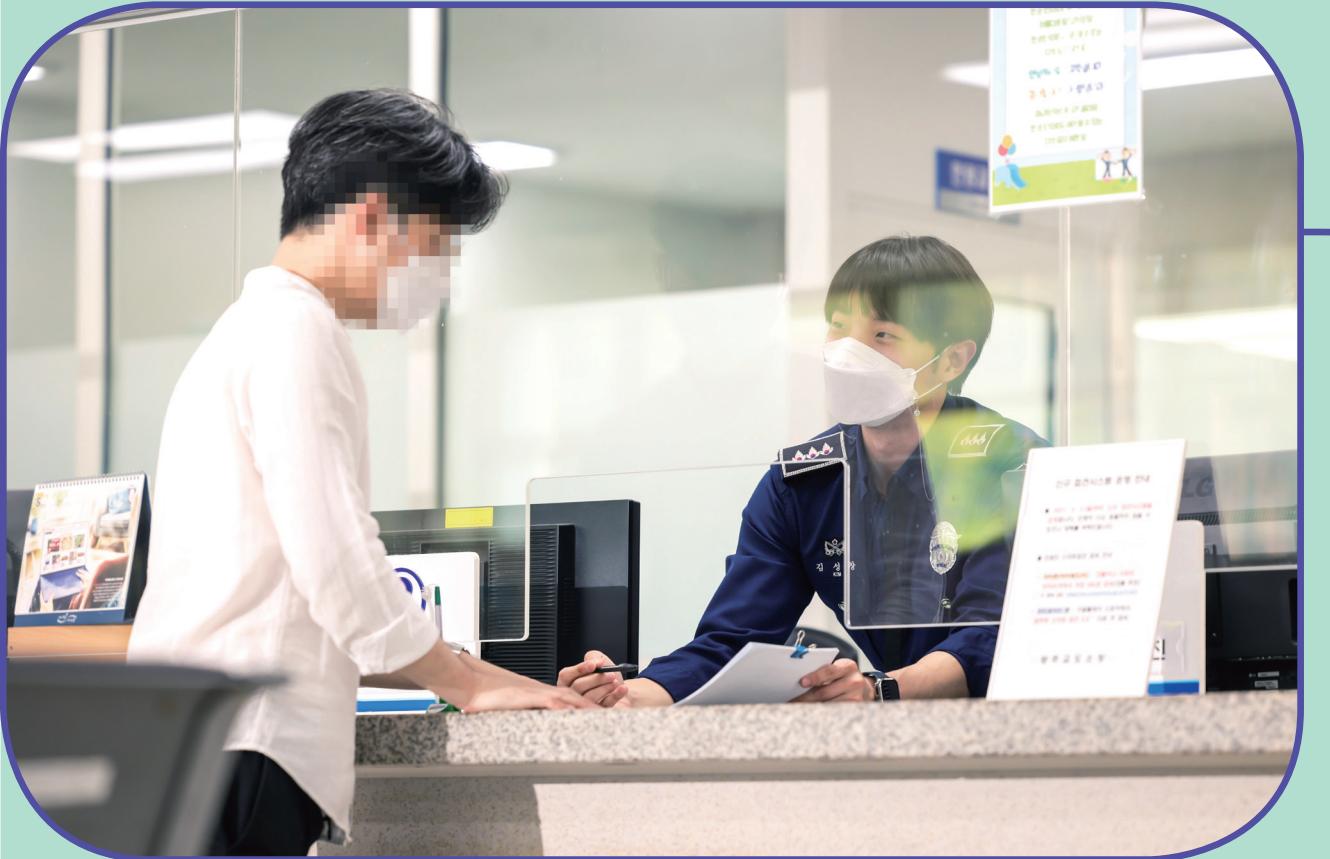
구성원이 행복한 교정,
국민이 웃는
사회를 만들다



광주교도소는 법질서 확립으로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줄입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책무를 다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1980년대 직원 교육



“ 친절과 봉사로 찾아가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천합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저 산의 흔들바위처럼 광주교도소 직원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광주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들은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나만의 방법은 [] 이다!



'테니스'

교감 이교범

마음이 어지러우면 퇴근 후 곧장 테니스장으로
달려가 땀을 흘립니다. 15년 동안
저를 다시 우뚝 서게 만들어 준 고마운 취미죠.



'멍 때리기'

교위 이동길

저도 테니스가 취미인데요. 열심히 라켓을
휘두른 뒤 코트 한편에 앉아 교도소를 둘러싼
녹음을 맹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정리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교위 임용래

가끔 수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깁니다. 안 좋은 마음을
곧바로 무뎌지게 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피하는 저만의 방법이죠.



'뒷산 트레킹'

교감 김정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뒤편에는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느긋하게
오르고, 때로는 소리도 한 번씩 지르며
마음을 다시금 추스릅니다.



'차가운 맥주'

교위 홍대표

가슴이 답답할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맥주 한 캔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이보다 더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또 있을까요?



'수학 문제 풀기'

교위 남궁경훈

수학을 어려워하는 딸을 위해 시작한
공부가 어느새 취미가 됐어요.
2차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저를 괴롭히던
잡념이 저 멀리 사라지죠.



'동네 산책'

교위 정준섭

퇴근하자마자 매일 한 시간씩 동네 곳곳을 누
비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들이
저에게 위로를 건네는 순간입니다.

외로움과 근심을 비우고 동료애와 보람을 채우다

광주교도소 보안과 미결3팀



마음 희망교정



미결 수용자들의 첫 번째 길잡이

보안과 직원 한 명이 수십 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사동 근무는 때때로 남모를 근심과 고독을 불러온다. 광주교도소 보안과 미결3팀 직원들은 그럴 때마다 팀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팀원들은 기꺼이 그 손을 맞잡는다. 이들은 그렇게 따뜻한 동료애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을 한가득 채우고 업무에 나선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총 7명으로 구성된 광주교도소 보안과 미결3팀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 관리를 담당한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된 미결 수용자들은 예외 없이 미결3팀을 거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R검사 후 2주 동안 미결3팀이 관리하는 격리사동에 머문 뒤 각자 배정된 거실로 자리를옮기는 것. 모든 것이 낯선 신입 미결 수용자들을 돌보는 한편 코로나19 차단 임무까지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미결3팀 특유의 긍정성과 단합력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이 이교범 팀장의 설명이다.

“팀원들의 얼굴만 봐도 밝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지 않나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평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을 생각하면 팀장으로서 언제나 고마움이 앞섭니다. 매일 출퇴근길마다 팀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죠.”

미결 수용자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기결 수용자와는 다른 처우를 제공받는다. 재판 준비를 위해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기결 수용자 대비 자유롭다. 자연스럽게 수용자들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수용자를 밀착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저희 팀원들도 사람이다 보니 수용자들을 상대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개중에는 여러 사정으로 구속됐지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에 수용자들의 처우를 최대한 보장하고, 요구사항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도움 하나하나가 모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례도 있는데요.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출소하는 사람들을 마주 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출소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수용동의 안전과 원칙을 사수하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미결3팀에게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위기가 종종 찾아온다. 올 4월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결 수용동에 퍼졌을 때, 미결3팀은 확진 수용자 전담팀으로 거듭났다. 모든 팀원들이 온몸을 던지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사동 근무에 나섰다. 피로감이 극에 달했지만,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더욱 강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다. 그렇게 50여 일을 보낸 끝에 미결 수용자의 80%에 달했던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당시 미결 수용동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저희가 관리하는 3층으로 보내졌습니다. 신입 수용자의 PCR검사와 격리를 담당하기에 저희가 맡는 것이 당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급 방호복을 입고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상황이 종료됐을 때의 보람과 기쁨이 매우 커집니다. 팀원들도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연신 ‘수고했다’는 말을 되풀이했죠.”

최근에는 수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기울였다. 미결 수용동의 구조 특성상 거실과 거실 사이에는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몇몇 수용자들이 창문을 통해 다른 거실의 수용자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애초에 허가 없는 부정 연

락이었던 데다가, 그 소리가 사방에 울려 다른 수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무엇보다도 각 거실에서 힘이 약한 수용자들의 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고심 끝에 팀원들은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해당 층을 파악하고 각 거실을 빠르게 시찰하는 방법을 택했다. 몸은 상당히 고했지만, 그것만큼 정확하게 부정 연락 수용자를 식별하는 방법도 없었다. 이를 통해 3명의 수용자를 적발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 처리 덕분에 어수선했던 수용동 분위기를 빠르게 다잡을 수 있었다.

500원에 담긴 진한 우정

온 힘을 다해 수용동과 수용자를 돌보다 보니,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수용자들도 상당하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한창이던 올 초, 임용래 교위는 상담 중 재판이 연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수용자에게 보석 신청 방법을 알려줬다. 덕분에 얼마 후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수용자는 출소하면서 그를 찾아와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준섭 교위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변호인 접견이 막혀 답답해하는 한 수용자를 위해 소통의 통로 역할을 자처했고, 결국 그 수용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누명을 쓰고 입소했던 한 인도인이 무죄를 받고 출



소했는데요. 나가면서 ‘팀원들이 외국인 거실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신경 써준 덕분에 누명을 벗고 건강하게 출소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긴 편지를 건네더군요. 타국에서 뜻하지 않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게 돼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웃음) ”

맡은 일을 향한 팀원들의 열정, 그 배경에는 동료를 위하는 뜨거운 애정이 있다. 지난겨울, 이교범 팀장은 코로나19 격리사동 환기 때마다 찬바람으로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사비로 패딩조끼를 구매해 나눠줬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소중했는지, 홍대표 교위는 조끼 왼쪽 가슴에 명찰을 따로 제작해서 붙였다고. 그런가하면 미결3팀 사무실에는 팀원 누구나 보안과 직원 휴게실에 있는 커피머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원짜리 동전을 모아 놓은 그릇이 마련돼 있다. 모든 팀원들이 때마다 동전을 채우는 통에 그릇이 비어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동료를 향한 진한 우정이 진하게 묻어났다.

미결3팀의 2022년 하반기 계획과 목표,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수용자가 굳게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수용자가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부담 없이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미결 수용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들의 진심은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MINI INTERVIEW

늘 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출퇴근길마다 팀원들의 건강과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평불만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그 모습에 날마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되, 여기 있는 동안 건강함을 회복하고 출소해서는 꼭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보안과 미결3팀장 이교범

주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주교도소 교감 이재영 & 교사 김재훈



수용자를 죄라는 어둠에서 성실한 삶이라는
빛으로 이끌려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교정공무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 그 어지러움을 이겨내고 33년 동안 묵묵히
교정공무원 한 길만을 걸어온 이재영 교감은
형제처럼 아끼는 김재훈 교사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넨다.
“어디서든 주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늦깎이 교정공무원의 남모를 고민

김재훈 교사 — 안녕하세요, 교감님! 햇살 좋은 날입니다! 오늘처럼 산 타기 딱인 날씨에는 늘 교감님이 생각납니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통 가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전국 곳곳의 명산으로 약초 산행을 떠나곤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문득 교감님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마셔 주실 거죠?(웃음)

이재영 교감 — 물론이죠, 김 교사! 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몸이 균질근질하고 괜히 싱숭생숭했는데, 김 교사와 함께 어수선한 마음을 추슬러야겠군요. 김 교사가 무도 특채로 임용돼 광주교도소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30대 중반에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으니 늦깎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일은 할 만한가요?

김재훈 교사 — 사람들에게 택견을 가르치다가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야겠다 싶어서 국가직인 교정공무원에 도전했으니, 대부분의 순간이 즐겁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결1팀에서 보호동에 온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위 문제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늘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마음이 흔들려서 애를 먹고 있어요.

이재영 교감 — 어떤 사람들이 이토록 강건한 김 교사를 흔들고 있나요? 모처럼 찾아왔으니 마음속에 담아 놓은 이야기를 한바탕 풀어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질 테지만, 내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곁들여 볼게요.

김재훈 교사 —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용 질서가 바로 서야 하는데요. 보호동에는 아무래도 흥분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다소 폭력적인 수용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들을 바른길로 이끄는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는데요. 교감님,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매 상황의 주인이 되면
적극성과 열정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재영 교감



평소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몸의 긴장을 푸는데,
여기에 더해 모든 곳의 주인이
된다면 한결 안정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나설 수 있겠군요.

김재훈 교사

주인의식으로 굳게 다지는 마음의 중심

이재영 교감 —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군요. 사실 나도 그런 수용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함께 일하는 선배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배들은 어김없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건네셨죠. 그러니 김 교사도 선배들의 지혜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세요. 더불어 모든 일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우리가 미결3팀에서 함께 일할 때 공황장애가 있었던 수용자를 진정시켰던 일을 기억하죠?

김재훈 교사 —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독거실에서 지내던 수용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통에 함께 출동해서 겨우 진정시킨 뒤 전후 사정을 따져 보니, 공황장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복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재영 교감 — 바로 그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와 김 교사 모두 수용자의 복약 관리를 더욱 신경 쓰게 됐잖아요. 당시에는 수용자를 진정시키느라 진을 뺐지만, 우리는 그 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와 같이 귀중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반복되는 일상을 스승으로 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머무는 곳이 바로 참된 세계다’라는 뜻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인데요. 매 상황의 주인이 되면 적극성과 열정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 교사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인의식을 한 스푼 더한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따스한 상부상조로 완생(完生)을 그리다

김재훈 교사 — 저는 평소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몸의 긴장을 푸는데, 여기에 더해 모든 곳의 주인이 된다면 한결 안정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나설 수 있겠군요. 교감님이 말씀하신 수처작주 입처개진, 잊지 않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교감 — 그렇다고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늘 우리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엄정하면서도 때로는 인자한 면모를 수용자들에게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용자들이 가장 잘 따르는 교정공무원이 돼 있을 겁니다.

김재훈 교사 —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쌓아 놓지 않기 위해 퇴근 후에는 취미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요새는 텃밭 가꾸기에 푹 빠졌어요. 제가 뿌린 씨앗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제법 감동스럽기까지 하죠. 교감님은 요즘도 매일 만 보 걷기를 실천하고 계시죠?

이재영 교감 —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산행과 같은 취미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걷기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 조만간 김 교사와 함께 예전처럼 약초 산행을 떠나야겠네요. 최근에는 자연을 좋아하는 성향을

십분 살려 산림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년퇴직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척실히 준비해서 어엿한 나무 의사로 거듭나려고 해요.

김재훈 교사 — 벌써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교감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교감님처럼 멋진 베테랑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천명의 늦깎이 후배를 많이 도와주십시오!(웃음)

이재영 교감 — 물론이죠! 김 교사는 이제 나의 형제나 다름없는 후배인걸요. 조만간 함께 산길을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 봅시다!(웃음)



독을 우유로 바꾸는 자애로운 손길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표 스님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교정교화는 뱀을
소로 변화시켜서 온 세상을 살찌우는 우유를 만들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뱀을 뱀으로 두면 세상에 독이 퍼질 뿐이다.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2년 차에
접어든 진표 스님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년째 수용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스승을 따라 교정교화에 나서다

25년 전, 진표 스님은 스승이자 제3대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인 천운 스님과 함께 광주교도소를 찾았다. 스승의 심부름을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그의 눈길은 어느새 수용자를 향해 있었다. 거실에 갇혀 지내는 수용자들을 바라보며 '아무리 죄 지은 사람들이라지만 얼마나 자유가 그리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때 느낀 측은지심은 어느새 봉사심으로 바뀌었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을 보태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가 2003년 종교분과 교정위원으로 나서게 된 사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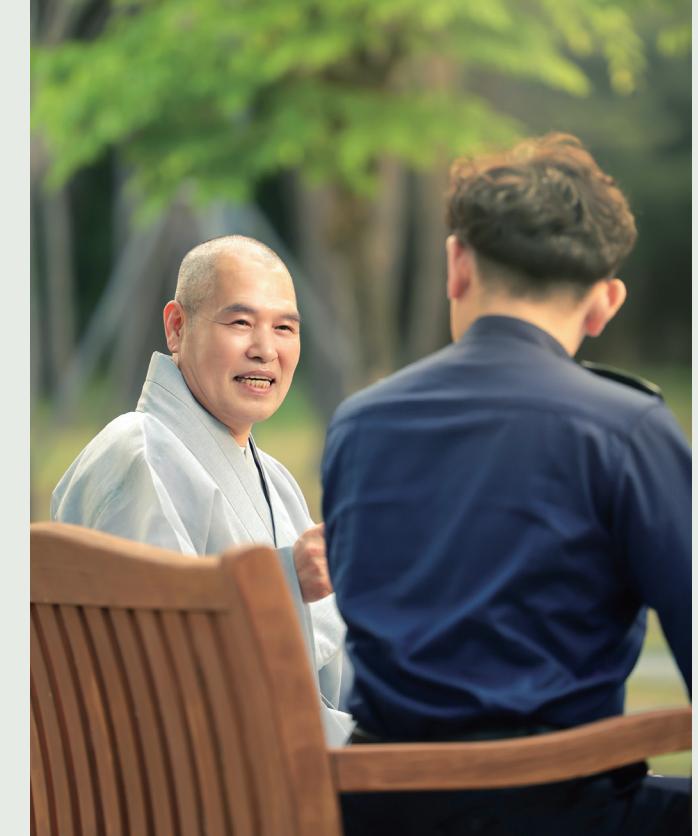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수용자들을 끊임 없이 펑박하면, 이들의 마음은 엇나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집니다. 반면 이들이 출소 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돌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전보다 맑고 따뜻해질 겁니다. 게다가 불교에는 지금의 삶이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는 윤회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수용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그들의 현생과 후생을 모두 구할 수 있죠. 스승님을 따라 광주교도소에 온 직후부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수용자 교정교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적 고찰로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진표 스님은 수용자 범회, 사형수 면담, 일대일 멘토링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사명감 띤 그의 진심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당연지사다.

"코로나19 이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만난 수용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몸이 불편해서 면담을 몇 차례 가지 못하다가 다시 그와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고 건강이 걱정돼서 마음을 졸였다는 말이 뒤따랐죠. 그를 진정시킨 뒤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 보니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저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더군요. 담담히 속마음을 내보이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용자 교정교화만큼은 꼭 이어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새 시대를 준비하는 분주한 움직임

2021년 4월, 진표 스님은 스승의 뒤를 이어 제17대 교정협의회장 자리에 올랐다. 늘 그랬듯 수용자 교정교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 가족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 수용자 자녀 중 10명을 추천받아 교육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전달한 것, 교정협의회의 역동성 증진을 위해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재학생을 청년 교



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교정위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와 교정교화 활동 정상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비대면 환경에서는 교정교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교정위원들의 활동도 전보다 위축됐는데요. 먼저 6월 중에 그동안 미뤘던 교정위원 총회와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서 교정교화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자격증 학습 및 취득 활동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확대해서 출소자 사회 복귀의 귀중한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정협의회장으로서 교정교화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제부터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두 배로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웃음)"

진표 스님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래, 그 밑바닥에는 교정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아울러 교정위원들이 아무리 내실 있게 활동하더라도 교정기관의 뿌리와 줄기는 결국 교정공무원임을 진표 스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이제는 교정공무원들의 지친 심신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모든 교정위원의 마음을 모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정공무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용자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만큼, 부디 자신을 잘 챙기시고 내일을 위한 힘을 비축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무도로 하나 되는 소문난 검도명가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 오검회

글 정라희 사진 이정도

검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따스한 햇살이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부산구치소 연무관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온다. 힘이 넘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 오검회 회원들. 남다른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듯 연무관 벽면에는 두 개의 우승 깃발이 당당하게 걸려 있다. 이 깃발들은 전국교도관무도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 전국에서 쟁쟁한 실력파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회에서 한번도 아닌 세 번 연달아 우승한 기록을 두 차례나 세웠을 만큼, 오검회의 실력은 남다르다.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1966년에 열린 제9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에 첫 출전을 한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 동호회가 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 깃발은 보통 우승팀이 다음 우승팀에 전달하는 것이 관례인데, 대회 세 번 연속 우승팀에게는 영구 수여합니다. 덕분에 회원들의 자부심도 큽니다.”

오검회 회장 이재현 교위의 말이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그동안 오검회는 매년 열렸



도복을 정갈하게 입고 선 모습에서 늠름한 기운이 번져 나온다. 죽도를 들고 겨루지만 예절을 익히며 수련을 겸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인 검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검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오검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거듭되는 수련과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검도의 값진 의미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던 전국교도관무도대회를 비롯해 전국교도관연합회장기검도대회, 부산시장기종별검도대회, 남해군수기검도대회, 사회인검도대회, 동구청검도대회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냈다.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에 ‘오검회’라는 이름이 붙은 때는 2018년.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동호회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자 어느 검도도장처럼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만의 정체성을 표현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오검회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 안에서 사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족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삼족오는 고구려 유적에서 빌려기도 하는 등 고구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의 정신을 잊는다는 의미에서 오검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검도를 향한 열정으로 매일매일 파이팅

오검회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동호회다. 현재 회원 수는 약 60명. 전국 교정기관 내 검도동호회 중에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검도 유경험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도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오검회에서 검도를 시작해 유단자가 된 회원들도 적지 않다. 회장 이재현 교위 역시 오검회를 통해 검도 유단자가 됐다.

“교정공무원이 된 후 부산구치소에서 처음으로 검도를 접했습니다

다. 검도의 가장 큰 장점은 부상 위험이 적고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에요. 신체 단련과 정신 수양을 동시에 합니다. 실제로 오검회에는 나이와 직급이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원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오검회 열혈회원인 최세경 교감은 “대학 시절부터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의 명성을 익히 들었다”고 전한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부산광역시장기종별검도대회에 참가했던 최 교감은 대회 현장에서 일반부에 출전한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의 대회 우승 소식을 접했다.

“스물한 살이던 그때는 막연하게 당시 우승팀이 ‘선수 출신의 무서운 아저씨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동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부산구치소 검도동호회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으니 감회가 남달라요. 더군다나 무서운 아저씨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슴 따뜻하고 열정 넘치는 부산사람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검회 회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는 함께 모여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섯 명의 사범들이 회원들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 6시 45분부터 30분 동안 기초 훈련도 병행한다. 취미를 넘어 검도에 끌어들인 사람이 많은 덕에, 땀 흘리는 시간도 유쾌하기만 하다.



스스로 수련하고 서로 배려하며

이날도 가볍게 몸을 풀며 훈련을 이어가는 오검회 회원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죽도로 타격하는 광경에서 역동적인 열정이 전해온다. 하지만 오검회 회원들은 겉으로 보이는 멋진 모습만이 검도의 매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면을 다스리며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한층 성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검도의 매력. 그래서 검도는 상대가 아닌 자신과 싸우는 스포츠라 할 수 있다.

“검도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백련자득(百鍊自得)이라는 격언이 유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수련으로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수련과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검도의 값진 의미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대부분을 사람 상대하는 일로 보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검도를 통한 수련은 자신감을 키우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된다. 지금이야 죽도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친검을 사용하기도 했던 만큼, 검도는 고도의 집중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실제로 검도 경기는 한 차례 단 3분 안에 승부가 갈린다. 검도를 통해 키운 집중력과 판단력은 어려운 업무도 피하지 않고 해결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검회 활동 2년 차인 김상수 교위는 “훈련을 마치고 명상하면서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마음의 고민을 잊는다”고 전한다.

오검회 회원들은 이 같은 검도의 매력을 지역주민들에게도 꾸준히 알려왔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했지만,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산구치소 검도교실’을 열어온 것. 오검회 사범으로 활동 중인 정민철 교사는 이 같은 활동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능기부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키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역할도 알리고 있다”고 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오검회 회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스스로 수련하고 서로 배려하며 진정한 검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활약이 며지않아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해 오길 기다린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몸과 마음이 숨 쉬는 일상 요가 테라피를 경험하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 심우환 & 나디아요가 강사 신여은



요가의 본령은 '치유다. 신체를 유연하게 하는 움직임을 넘어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심우환 교도가 몸과 마음의 '쉼표'를 찾아 나섰다. 요가 전문가와 만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내면의 평온함을 찾아서

요가의 첫인사이자 끝인사로 알려진 '나마스떼(Namaste)'는 '당신과 내 안의 신 성한 빛에 경배합니다'라는 의미다. 흔히 요가하면 고난도의 자세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지만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 둘 모두를 다스릴 수 있다. 부드럽고 개운하게 몸의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고요함과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 평소 마음 수련에 관심이 많은 심우환 교도가 요가에 처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교도관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수용자를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쌓이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마음에 안정을 찾는 저만의 방법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전문가에게 묻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6년 설립된 요가 전문 센터 '나디아요가'의 신여은 강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요가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안내했다. 거창한 준비물이 없어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된다고 강조했다.

"요가는 특별한 기구나 도구 없이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요가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좋아요. 익숙한 방, 잠들고 일어나는 침대, 자주 가는 공원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랄까요. 잘 하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요가에 도전할 수 있어요."

심우환 교도는 신여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자세와 호흡법을 배우며 요가를 몸 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디스크와 거북목을 예방하는 동작을 통해 몸을 한층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Q 요가는 운동과 명상이 함께 이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요가는 수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기 때문이죠. 몸에 근력을 키우는 동시에 마음을 수련합니다. 자세 수련에 국한되지 않고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립니다.

Q 강사님이 생각하는 요가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A 교도님은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본 적 있나요? 요가는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감정을 마주하면서 온전히 '나'를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노가 생기면 호흡이 가빠지는 데,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꾸준히 하다 보면 요가 전후 감정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요가 지도자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또한 수련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보완해 주는 역량인데요. 요가를 통해 용기, 자신감, 창의성 등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지요. 요가를 하면 인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Q 요가에 관심이 있어서 도전해보려 했는데, 남성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망설여지더라고요.

A 보통 여성 비율이 높아 남성들이 진입 장벽을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성들로부터 '몸이 뻣뻣한데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요가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을 사용합니다. 근육이 발달한 남성들 또한 요가에 도전 할 수 있어요.

Q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 쉽게 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지개 동작으로 몸을 개운하게 풀어주세요. 동작을 3~5분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쉰다는 것에 몰입하면 잠ネ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점차 1분, 2분 늘려나가 보세요. 잠들기 전에 명상 앱을 실행하고 호흡해도 좋아요.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기에 좋답니다.

Q 업무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한 요가 동작 도 궁금해요.

A 평소 등을 마는 자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의 노화를 예방하는 '부장가사나' 동작을 추천해요. 재활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는 동작으로 척추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목 결림을 해소하고 거북목을 교정하는 '사상가사나'와 '할라사나'도 평소에 꾸준히 해주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직접 배우니까
온라인 영상으로 보는 것과
확연히 다른 느낌이에요.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운동량이 상당하네요. 내 숨소리에
집중하니 복잡한 머릿속이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요가를 실천해 보려고요."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
심우환

”

처음 도전하신다기에 초보자 코스로

준비했는데 굉장히 잘하셔서
놀랐어요. 상급자 동작까지
능숙하게 하시는 걸 보니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틈틈이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몸에 활력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

나디아요가 강사
신여은





리넨 셔츠 & 바지

자연스러운 느낌의 분홍색 리넨 셔츠와 아이보리색 바지로 편안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름 캐주얼 스타일. 신발도 면 소재 슬립온으로 색상과 소재를 통일했다.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스타일링으로 여름을 준비하다

점점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 본격적인 더위를 맞이하기에 앞서

수원구치소 윤주성 교감이 특별한 변신에 나섰다. 산과 들이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듯,

초여름과 잘 어울리는 밝고 시원해 보이는 옷을 입으며 여름맞이에 나선 그의 하루를 소개한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승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여름이니 새롭고 밝은 옷을
입어볼까 생각했어요.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니
평소에 입지 않았던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순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답답한 일상이 조금씩 견하고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하며 후회 없이 보내겠다는 기대가 잔뜩 부푼다. 그런 마음을 가득 안은 윤주성 교감이 특별한 하루의 문을 두드렸다.

“평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직원이 월간 <교정>을 자주 보는데,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저를 추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좋은 추억과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윤주성 교감이 교정공무원의 옷을 입은 지 벌써 30여 년.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을 꾸미는 일에서 멀어졌다고. 평일이면 근무복, 주말이면 등산복이 더 편하지만,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도전해 보면 더 멋진 삶이 만들어지는 법. 오랜 시간 유지해 자신만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윤주성 교감은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해 주저 없이 스타일 변신에 나섰다.

“여름이니 좀 새롭고 밝은 옷을 입어볼까 생각했어요.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니 평소에 입지 않았던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죠. 특히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캐주얼의 옷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옷을 앞에 두고 잠시 고민하던 윤주성 교감에게 스타일리스트가 밝은색의 셔츠와 바지를 추천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특별히 시원한 소재로 골랐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 섞인 반응이었지만, 옷을 갈아입고 나온 윤주성 교감은 생각보다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내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에 임했다.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하지만 윤주성 교감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가 결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근무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게 그렇듯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포기 말고 ‘부자유친’의 자세로 임하길 바랍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하자’는 의미인데요, 진심 어린 마음이 수용자를 변화시킬 겁니다.”

교정에서 값진 경험을 얻다

첫 번째 의상 촬영을 마친 윤주성 교감은 다음으로 캐주얼 정장 스타일에 도전했다. 연한 갈색의 리넨 재킷에 밝은 하늘색 바지를 함께 입었다. 평소 정장 스타일을 선호해 재킷 등을 즐겨 입지만, 조금 더 새롭고 밝은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가벼운 스카프를 착용했고, 색깔을 맞춘 보트 슈즈까지 더해 시원해 보이면서도 개성 있는 스타일이 완성됐다.

“교정공무원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아주 젊었던 시절에 잠시 유명한 옷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스타일링이라는 것에 관심도 있었고, 많이 배우고 싶었죠. 이후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다양한 옷을 입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보니 신기하네요.”

꾸준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정년퇴임을 3년 정도 남겨 두고 있는 윤주성 교감. 지나온 시간이 긴 만큼 그는 지금까지 달려온 추진력을 이용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여유롭겠지만, 지금은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땄어요.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을 밀거름 삼아 사회복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대화 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변함없이 강렬한 눈빛을 보여준 윤주성 교감. 평소 업무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는 대목이다.

우연한 기회가 만든 보람찬 삶

교정공무원으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온 윤주성 교감. 지금은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끼며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지만, 그가 교정공무원이 된 배경에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생소했죠. 제대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던 차에 우리 형님의 친구분이, 당시 교정공무원이었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정공무원을 추천했어요. 시험일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작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가 윤주성 교감의 삶을 바꾼 중요한 선택이 될지 그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오랫동안 교정시설에 몸담고 있었으니 경험한 것도 많을 터. 교정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문자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수용자 중에서는 사회에서 평생 의지할 데 없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다가 생활형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이곳에 와 죄값을 달게 받는 동안 교정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그것이
궁금
하다

주말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등산과 독서를 하면서 신체와 마음을 단련합니다. 안양교도소 뒤에 있는 모락산에 자주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잔병치료도 없는 것 같고요. 또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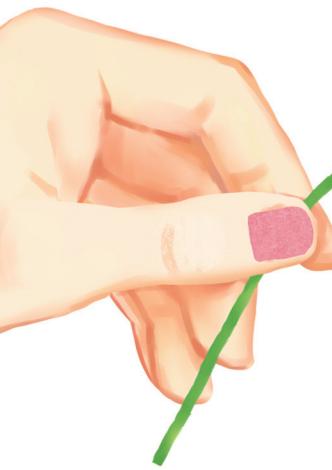


리넨 재킷 & 치노팬츠

연한 베이지색 리넨 재킷에 티셔츠를 반쳐 입고, 파스텔 느낌의 파란색 치노팬츠에 흰색 벨트, 목에는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다. 색상을 맞춘 보트 슈즈까지 더해 여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세미 캐주얼 정장 스타일.

고산동의 민들레

글 의정부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이바른



• 법무부의 시간은 간다. 교정시설에서는 유명한 어구이다. 교정시설에서 보내는 일상이 하루하루 비슷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시간은 흐른다는 표현이다. 수용자 신분이었던 선배들과는 달리 이젠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에게도 그 절대적인 시간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다. 길게만 느껴지던 3년이라는 복무 기간 중 1년 2개월이 흘렀다. 겨울에 맞이했던 의정부교도소의 첫 모습이 겹치며 벌써 두 번째 겨울이 지나 여름이 왔다.

• 지난 겨울 내가 살던 남쪽 지방과는 달리 의정부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교도소 뒤에 있는 수락산의 설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처음에는 설레었지만 이젠 눈 내리는 날의 낭만은 없어졌다. 한밤의 눈송이는 우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주며 아침잠을 깨웠다. 넉가래로 눈을 치우는 것도 꽤 익숙해졌다. 눈이 오면 도로에 쌓인 눈을 빠르게 치워 줘야 한다. 굳게 단혀 있는 교정시설에서의 '삶'을 위해선 외부의 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매일 줄줄이 들어가는 식자재, 구매 물품, 생필품, 택배는 생활 유지를 넘어 단절된 수용자의 삶을 밖과 이어주는 커다란 끈처럼 보였다. 눈을 열심히 치우다 보면 곁웃 속으로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여전히 손발은 시렸다. 하지만 교정공무원분들의 '고생 많다'라는 말 한마디, '대체복무요원들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라는 응원은 얼어 있던 우리의 손을 손난로처럼 녹여 줬다.

• 의정부교도소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4월 봄에도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눈은 아니다. 웬지 모르게 의정부 교도소에는 민들레가 참 많이 있다. 노란 민들레가 지고 하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릴 때면 겨울에 이어 또 한 번 눈보라가 일어난다. 민들레의 꽃 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대체복무가 도입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 항상 대체복무요원을 살피고 친절하게 교정시설의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교정공무원분들, 생활과 시설 개선을 위해 힘써 노력해 주시는 총무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줘서 정말 고맙다며 우리를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시는 소장님까지. 내 마음에 날아온 한 줌의 민들레 씨도 활짝 꽃을 피운다.



• 지난 1년 동안 대체복무요원 생활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교정시설 내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위성사진에도 표시되지 않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일까, 교정공무원의 혼신도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CRPT의 땀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부드럽게 수용자를 다루는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교정시설이라는 무대에서 이들의 역할은 그럴 수 없다. 수용자가 느끼기에는 가까워질 수 없는 대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위해서 이들은 항상 단호하고 냉철한 표정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들의 업무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식당에 있다가도 못 다 채운 허기를 뒷전으로 하고 빠르게 달려간다. 검은색 모자와 제복이 영화 속 히어로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 이밖에도 모두가 잡들어 있을 시간에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교정공무원, 각 사동과 작업장의 담당자들, 절대 뚫려서는 안 될 철문을 감시하는 담당자들 그리고 모두의 활력을 위해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직원 식당 조리사분들. 미처 열거하지 못한 교정시설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 칭송받지 못한 영웅)'들은 아직 무대의 뒤편에 있다. 외부에는 감춰져 야 하기 곳이기에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노고는 언젠가는 빛을 받을 것이다. 고산동의 하늘을 뒤덮은 민들레 씨가 바람에 흩날려 외정문을 넘어 날아가듯 교정 가족들을 향한 민들레 씨앗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안착되길 바란다.

• 아마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조그마한 민들레가 자라나길 바랄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마음의 표시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 주기를 희망할 것이다. 어떤 씨들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겠지만, 분명 어떤 씨는 뿌리를 내려 겨울이 지나 봄에 노랗게 꽃을 피우리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교정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나도 이제 교정시설의 한 구성원 또는 가족으로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자를 바라볼 것이다.

• 대체복무요원들은 서로를 정겹게 부를 때 '대복이'라는 애칭을 사용한다. 700명에 가까운 대복이들은 2022년 1월 기준 전국 각지 14개의 교정시설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 비록 우리는 대체복무로 일컬어지지만 '대체 인력'이 아닌 교정시설의 필요 인력이 돼 가는 중이라 생각한다. 많은 교정 가족이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좋은 흙이 돼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부가 되고자 곱게 알갱이를 연마한다. 다시 봄이 오면 고산동에는 하얀 민들레 눈이 흩날릴 것이다.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글을 끝맺어 본다.

※ 이 글은 2021년 12월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해 선정된 작품입니다.

문맹 어머니



지리산 감싼

섬진강 자락에서 나신 어머니
그때가 일제 강점기 이른바 문화 통치시대였다
어머닌 가혹한 일제 민족 말살시대에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조잡한 검은 판자로 지어진 국민학교
선생은 일본 사람이었고
옆구리엔 항상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첫 번째 시간이었을까
선생은 어머니를 지목하여
일본어 발음을 시키셨다

얼굴-카오 머리-아타마 입-쿠치

글 수원구치소 교감 이우현

순수하고 순박한 어린 산골 소녀 입에선
이상한 일본어 발음은 서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선생은 가차 없이 매질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선생의 눈빛과 찬 칼이 무서웠는데
어머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후로

어머닌 학교를 자파했다
뽕나무밭에서 종일 놀다가 친구들과 학교 갔다 왔다고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어머닌 평생 문맹으로 사셨다

섬진강 자락 강 건너에서 배 타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시집오셨다
아버지 전쟁과 죽음이 항상 신산했고 고단했던
묻지마라 갑자생
두 번 군대에 끌려가셨다
한 번은 일제 강점기 남양 군도로 떠돌고
또 한 번은 해방 후 논산훈련소 징집병

어머닌 남편 없는 그 긴 세월 동안
험한 쟁기질 농사일 시부모 봉양 다 해쳐 나오셨다
집안 회계일 아버지에게 맡기시고
당신보다 빨리 가시면 안 된다고
아버질 끔찍이 챙기셨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보다 오 년을 빨리 떠나셨고
오 년 후 어머닌 당신이 평생 뵐약볕에
콩밭 매던 그 밭에 묻히셨다
사시는 동안은 지지리도 자식 복이 없으셨던 어머니
당신이 떠나신 날 만큼은 복이 많으셨다
그날은 온 세상이 벚꽃이 꽂비가 되어 날리우고
하얀 배꽃이 만발한 포근한 봄날이었다

나는 그날 내 눈물 너머로 분명히 보았네
송화가루 휘날리는 먼 산 위로
한 마리 학이 날아가는 것을
지금도 분명히 믿고 있네
그 새는 어머니라는 것을

CEO로 거듭난 '프로 도전러'

CEO singer

국내 최고의 소속사를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기획사 설립을 택했다.

걸그룹 멤버에서 래퍼와 배우로,

그리고 축구인으로. 돌이켜 보면

유빈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매번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 냈다.

그렇기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CEO

유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13년에 걸친 성장의 여정

'도전러'는 도전이라는 단어에 영어 접미사 'er'을 붙인 신조어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을 뜻 한다. 여기에 '프로'가 붙으면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된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 도전러'와 유빈은 마치 블록처럼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 그 정도로 유빈의 연예계 생활은 크고 작은 도전으로 점철돼 있다.

2007년 원더걸스에 합류한 유빈은 멤버들과 함께 〈Tell me〉, 〈Nobody〉, 〈Be my baby〉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 걸그룹'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2015년 〈언프리티 랩스타2〉에서 뛰어난 랩핑과 중성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여성 래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2월 원더걸스가 해체된 뒤에도 유빈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10년 넘게 모든 걸 함께 했던 멤버들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기에 그냥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의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음악을 착실하게 준비했는데요. 덕분에 2018년 6월 솔로 데뷔 앨범 〈도시여자〉와 타이틀곡 〈숙녀〉를 성공적으로 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유빈은 완성도 높은 음악성과 뉴트로 특유의 '세련된 촌스러움'을 겸비한 〈숙녀〉를 발판 삼아 단숨에 '시티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숙녀〉는 '컴눈명(다시 컴백해도 눈감아 줄 명곡)'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이후에도 〈Thank U Soooo Much〉, 〈무성영화〉 등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을 켜켜이 쌓아 나가던 그는 2020년 초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과 독립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것. 유빈은 고심 끝에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가수 유빈



자신의 발전이 주변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을 되새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덧 CEO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작년 10월에는 MZ세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데비 어페’를 론칭했어요. 데비어페는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뜻해요. 착용자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널리 퍼져 나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행히 데비어페의 중성적인 매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웃음)”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섦이 두려운 건 아닌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후회를 떠올려요.”

한 명의 아티스트를 넘어 3년 차 CEO로

2020년 1월 25일, 유빈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결별을 고했다. 서로를 향한 축복만이 가득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계약서를 넘어선 이들의 애틋한 관계는 이후 유빈의 행보에서도 물씬 느낄 수 있다. 그는 원더걸스 데뷔 일인 2월 10일에 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일을 거꾸로 뒤집은 5월 21일에 독립 후 첫 번째 신보 <넵넵>을 발표했다. 함께 보낸 지난 13년에 대한 고마움이 녹아 있는 나름의 이스터 에그(Easter egg)다.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JYP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속사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계속 남아 있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면 아티스트 이상의 무언가를 이루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직한 나만의 회사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꿈도 독립을 결정하는 데 한몫했죠.”

대표가 되자 오로지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온갖 업무를 하나하나 직접 처리하며 두루뭉술했던 소속사에 대한 고마움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선명해졌다. 자신을 믿고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양어깨에 가득 앉았다. 그러나 유빈은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격과 꾸준한 성장의 기쁨,



교정공무원과 함께 펼친 꿈의 날개

“배움은 평생이다.”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줄곧 말했고, 딸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3년째 대표로서 홀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유빈은 여전히 세상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물론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낯섦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아간다. 후회를 줄이기 위함이다.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섦이 두려운 건 아닌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후회를 떠올려요. 어떤 일이든 하고 후회하는 것과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해보면 적어도 그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이미 실행에 옮겨 봤으니 미련과 후회도 적을 테고요. 지금껏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여러 도전에 임했던 것 같아요.”

도전에 대한 유빈의 이야기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색으로 연결됐다. 어릴 적에는 제복을 입고 교정시설을 지키는 교정공무원이

막연히 무섭게 느껴졌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교정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교정공무원이야말로 매 순간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에 도전장을 던지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프로 도전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를 빌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와중에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교정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교정공무원분들의 숨은 노고 덕분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티스트와 CEO로서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으니까요.”

유빈이 세운 회사명 ‘르’는 ‘r’을 세 번 겹쳐서 만들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뜻의 힙합 용어 ‘real recognize real’을 축약한 단어다. 그 의미처럼, 그는 앞으로 아티스트와 스태프진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진짜를 향한 유빈의 도전은 이제 막 닦을 올렸을 뿐이다.

카메라가 사랑하는 풍경 초여름 ‘인생 샷’~ 찰칵



용단처럼 깔렸다, 보랏빛 꽃 강원 고성 하늬팜랜드

요즘 고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단순하게는 그저 꽃밭이고, 이러저러한 수식을 달기 시작하면 끝없이 많은 곳이다. 대표적인 수식어가 ‘한국의 팜도미타’이다. 팜도미타는 일본 훗카이도 후라노에 있는 대규모 라벤더 농장으로, 하늬라벤더팜과 마찬가지로 이맘때 고운 꽃을 틔운다. SNS를 뜨겁게 달군 수식어도 있다. ‘인생샷 명소’라는 것, 그것도 핸드폰 용량이 꽉 찰 때까지. 실제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어디든 눈부실 만큼 공간 곳곳이 예뻐, 하늬라벤더팜 사진에는 늘 '#예쁨주의보'라는 해시태그가 붙는다. 초록 용단 위에 보랏빛 물감을 펴놓은 듯 풍경이 아스라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테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벤더 꽃밭을 둘러싼 풍경도 곱다. 꽃밭 가장 자리를 채운 여러 채의 유럽풍 건물 주위로 황금빛 호밀밭과 붉은 양귀비꽃밭, 푸른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조화롭게 어울렸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쁘다”라며 환호할밖에.

하지만 잊지 마시라. 보랏빛 라벤더 꽃이 환히 피는 때는 1년에 고작 20여 일 뿐이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을 가득 채운 ‘잉글리시 라벤더’는 5월 하순 꽃을 피우기 시작해, 6월 초·중순경 절정을 이룬다.

이토록 예쁜 바다, 가진해변



요즘 고성에서 가장 ‘힙’한 바다로, 드라마 <서른, 아홉>의 촬영지다. 근처 카페 덕분에 인기를 끌어 ‘가진롱비치’란 이름을 얻었을 정도. 처음엔 해안을 두른 철조망 때문에 주위를 배회하기 일쑤지만, 가진롱비치는 누구라도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예쁜 바다이니 서슴없이 들어가시라. 들어가 ‘살짝만 달아도 손끝 환해지는 바다’를 충분히 즐기다 올 것이다.

물이 마을을 푸르게 휘감아 흐르다

경북 예천 회룡포

물가 풍경이 좋은 예천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다. 물과 접한 공간이 그만큼 넓다. 푸른빛의 내성천이 오메가(Ω) 모양으로 마을을 동그랗게 감싸 안고 있으니, 마을의 350°가 물가인 셈이다. 덕분에 마을에서는 반영 고운 아침이, 윤슬 그득한 오후가 일상이다.

이맘때면 색다른 매력으로 즐거워지는 곳 또한 회룡포다. 모내기 끝난 무논을 적시는 개구리 소리 때문이다. 상상해 보시라. 초여름의 어스름 저녁을 빼곡하게 채우는 개구리 소리의 일정한 리듬을. 도시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그 소리가 한 편의 ASMR이 되어 마음에 여유를 맷하게 한다. 오메가(Ω) 모양의 물길부터 조망해 보자. 장안사 입구 주차장에서 도보 15여 분 거리에 있는 회룡대에 서면 초여름 풍경의 회룡포가 한눈에 드러난다. 회룡포 뒤로 보이는 하트 산도 놓쳐서는 안 될 명소다.

회룡대가 회룡포 여행의 핵심이라면, 명물은 ‘뽕뽕다리’다. 뽕뽕다리는 한 사람 정도만 겨우 지날 수 있는 ‘구멍 뚫린 철판’으로 만든 가교. 이 가교를 지나야 푸른빛이 도는 마을에 뒹을 수 있다. 바람 좋은 한낮, 뽕뽕다리 어디쯤 앉아 내성천 맑은 물에 발을 폭 담그면 초여름의 신록이 몸 안으로 담뿍 든다.

담백하고 고소한 배추전 맛



회룡포에선 이 땅의 마지막 주막이었던 삼강주막이 내성천 물길로 이어져 함께 둘러보기 좋다.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 물줄기가 모이던 삼강나루에 있어 삼강주막이라 불리는 곳으로, 주모가 떠나 한 점 풍경으로 남은 옛 주막 옆으로 막걸리와 파전 등을 파는 주막촌이 형성돼 있다.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배추전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세상 시름이 다 걷히겠다 싶다.



수련에 빗방울 또르르르 경남 고성 상리연꽃공원

수련은 본래 초여름 안에서 편다. 초여름은 장마철과 잇닿는 경우가 많다. 상리연꽃공원은 호수의 절반이 수련으로 뒤덮이는 곳. 장마철이면, 그 수련 위로 또르르 빗방울이 맺힌다. 호수에 타닥타닥 떨어지는 빗소리도 듣기 좋고, 빗물이 수면 위에 동글동글 떨어지는 모습도 바라보기 좋다. 산 중턱까지 바짝 내려온 구름이 호수 일대를 뒤덮는 풍경도 아름다운 순간. 그 선경 같은 풍경 때문이었을까. 누군가는 ‘수련 보기에 가장 좋을 때는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난 뒤’라고 했다.

수련은 중부 이남 지역에서 연못에 심어 기르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한여름에 피는 연꽃과 달리 6~7월에 꽃이 피 이맘때가 딱 절정이다. 원형에 가까운 잎이 물 위에 동동 떠 있고 그 위에 진분홍빛 수련이 역시 물 위에 떠, 수면이 그냥 꽃밭이다.

공원의 규모는 총 19만 8,400m². 이 중 2/3가 연밭이다. 논처럼 구획된 7개의 습지에 수련, 홍련, 백련, 노랑어리연꽃 등 200여 종이 넘는 연꽃이 자라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수련이다. 그 진분홍빛 수련 사이 징검다리를 풍당풍당 뛰어 건너는 일도 흥겹고, 공원 가운데 택을 따라 걸으며 연꽃을 살피는 일도 재미있다.



지금 만화방초는 수국 천지



상리연꽃공원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엔 수국 가득 피는 여름 숲, 만화방초가 있다. 개인이 30년 넘게 가꿔온 만화방초는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들이 있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국과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남보랏빛 수국과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공간이 특히 예쁘고, 전체 33만 578m² 공간 중 6만 6,115m²이 야생 녹차밭이라 사계절 언제 찾아도 푸르러 좋다.

MZ세대의 추억은 어떻게 현재로 소환됐나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싸이월드, 포켓몬빵 열풍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스물다섯 스물하나>, 다시 유행하는 ‘싸이월드’와 ‘포켓몬빵’에는 겹치는 세대가 있다.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던 MZ세대다. 이들의 추억이 어떻게 현재로 소환돼 당대의 세대를 매료시키고 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 tvN

90년대 외환위기 시절의 추억, <스물다섯 스물하나>

‘힘겹던 시절도 돌아보면 추억이 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최근 종영한 <스물다섯 스물하나>다. 이 드라마는 1997년 당시 터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그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청춘들의 성장을 그렸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된 백이진(남주혁 분)과 IMF 여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편성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희도(김태리 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청춘의 풋풋한 힘으로 시대를 벗어내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드라마는 달콤하고 설렘 가득한 청춘극만큼 1990년대를 회상하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 코드가 담겼는데, 원수연 작가의 만화 <풀하우스>, 카세트테이프, 빼빼, 나이트클럽, 공중전화 부스, 비디오·만화 대여점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브랜드의 옷이나, 당시 가요계를 강타했던 힙합 문화 같은 소재와 옛 감성의 영상 연출은 당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MZ세대의 추억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실 1990년대 복고 열풍은 이미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나왔을 때 신드롬처럼 퍼져나간 바 있다. 당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홍대 앞 음악 카페에 청춘들이 몰려들었고, 인기를 끌고 사라졌던 가수들이 다시 방송가로 소환되기도 했다.

특히 1997년 IMF가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우리 사회의 어떤 변곡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본격화된 시기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던 시기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대중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외환위기를 잘 벗어내고 현재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힘겹던 시절에도 청춘들은 사랑을 했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어려운 시대도 결국은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를 전한 것. 힘든 시절이지만 그것조차 추억으로 여기는 MZ세대들이 이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던 이유다.

다시 문을 연 싸이월드, 추억 찾기 열풍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복고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한 SNS 싸이월드 역시 복고 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싸이월드가 복구되면서 당시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고

그 안에 담아놨던 사연과 사진을 다시 찾아보는 ‘추억 찾기’ 열풍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에 올렸던 사진과 현재의 달라진 자기 모습을 붙여 SNS에 게재하는 방식은 과거 ‘2000년대의 SNS’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가 현재의 SNS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연예인들은 복구된 사진첩에 담긴 과거 사진을 꺼내 SNS에 올리며 팬들과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카이스트 출신 연구자들이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한 SNS로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1년 미니홈피 프로젝트로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니미, 미니룸, 도토리, 일촌 맷기 같은 개념을 도입했고, ‘미니홈피’는 거의 고유명사가 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 기반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글로벌 SNS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추락했다. 그러나 최근의 복고 열풍과 맞물리면서 부활한 것.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한 추억 찾기 열풍으로 싸이월드는 출시 한 달 만에 SNS 앱 신규 설치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캐릭터 스티커 담긴 포켓몬 빵 대란

MZ세대의 추억 찾기 열풍은 최근 제과업체에서도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포켓몬빵’ 대란이 그것이다. 사실 제과업체에서 양산하는 빵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우후죽순들면서 과거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마트와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사이에서 ‘오픈런(문이 열자마자 뛰어가 사는)’ 사태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생겨나기도 했다. 포켓몬빵은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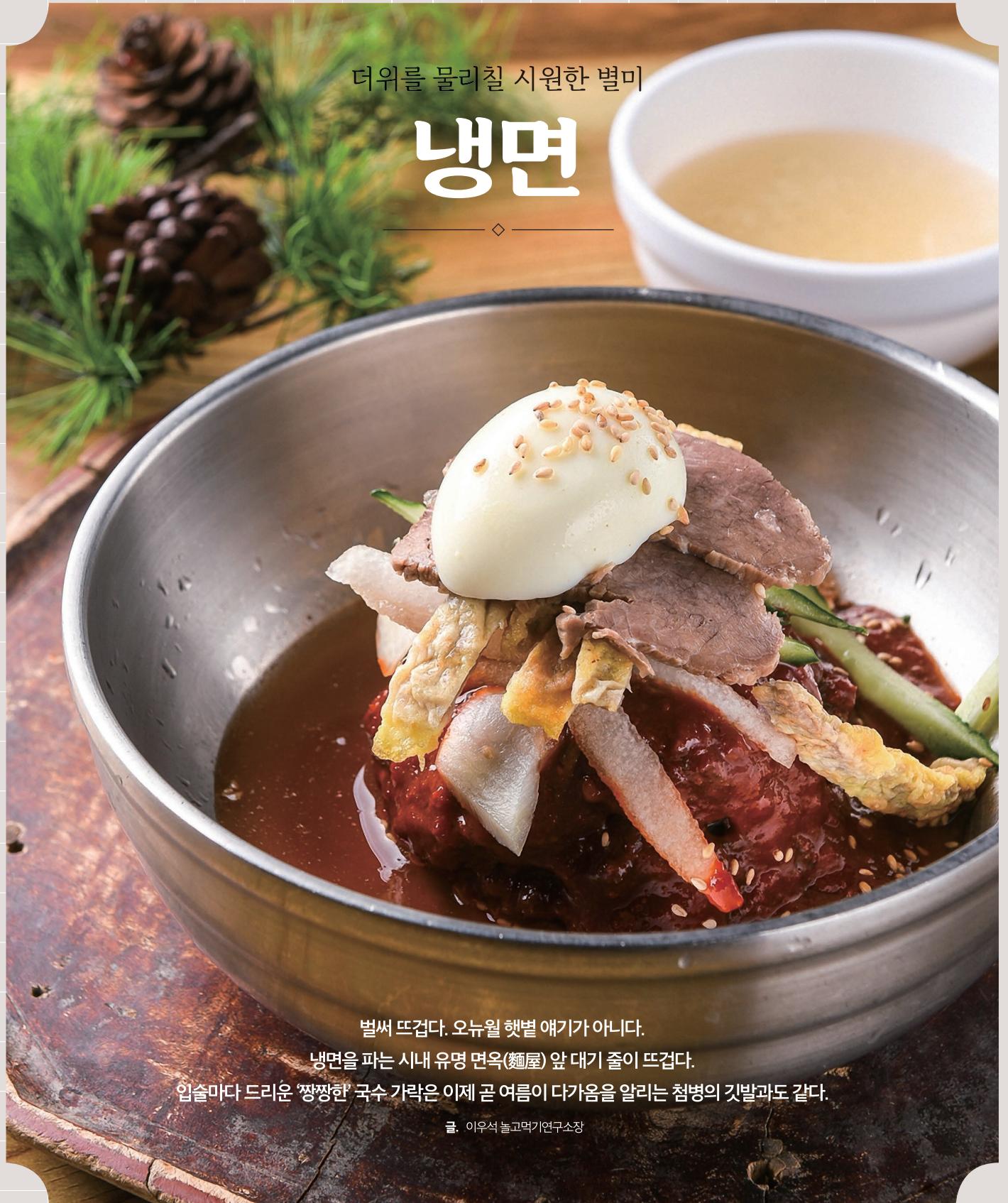
사실 포켓몬빵은 이미 2017년 먼저 출시 됐는데, 당시 반짝 특수를 누리긴 했지만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해 1년 만에 단종됐던 것. 포켓몬빵이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로 빵과 함께 포장된 ‘띠부띠부씰(쉽게 떼고 붙이는 스티커)’을 들기도 하지만, 사실 2017년 포켓몬빵에도 이 띠부띠부씰은 들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포켓몬빵 열풍의 원인을 빵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가 불러온 새로운 소비심리가 그 이유로 꼽힌다.

해외여행이나 공연 같은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새로운 여가와 놀이로서 포켓몬빵 스티커 수집 같은 것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포켓몬빵은 팬데믹 상황이 야기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하고 추억을 돋우는 상품이 됐다.

복고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과거의 추억을 돌아보고픈 욕망에서 나온다. 그때를 경험한 MZ세대들이 빠져든 <스물다섯 스물하나>나 싸이월드, 포켓몬빵 열풍에는 이들이 처한 만만찮은 현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이 한동안 지속될 코로나19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 극심한 양극화, 무너진 성장의 사다리 같은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 SPC삼립



더위는 냉면으로 이간다

냉면은 본시 겨울 음식이었다. 메밀의 수확기는 늦가을, 육수로 쓰는 동치미는 '동침(冬沈, 겨울에 먹는 김치)'에서 나왔다. 무도 겨울에 단맛이 든다. 물론 여름에도 맛있는 것이 냉면이다. 시원하니까, 그 맛에 후루룩 뺄아들인다.

냉면은 보통 물과 비빔으로 나눈다. 물냉면은 '국물(육수) 냉면'의 약이다. 시원한 육수에 면을 말아낸다. 비빔이라 하면 푸성귀와 장을 얹고 비벼내는 골동면(骨董麵)을 이른다. 당연히 차갑게 식힌 국수를 쓴다.

면옥 전성시대를 열다

맛있는 냉면으로는 진주와 평양이 유명했다. 평양에선 그저 국수라 했다. 분틀로 냉면을 뽑아 동치미에 말아 먹던 국수였는데, 한자 냉면이란 이름은 훗날 도입됐다. 평양을 떠나온 식당들이 곳곳에 정착하며 냉면(冷麵)이라 쓰인 붉은 깃발을 걸었다. 꿩고기 정도가 들어가던 것이 소고기와 돼지, 닭고기 육수 등이 가미되어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일제강점기 경성 시내에 많은 냉면집이 생겨났다. 이른바 면옥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권세 등등한 진주 지역에서 조선 시대부터 먹던 진주냉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그 고명부터가 화려했다. 해산물 육수를 쓴 대신 육전과 줄알(지단) 등을 썰어 올렸다. 재료도 값비싸고 손도 많이 간다. 재료를 다루는 솜씨도 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권력자의 음식이었던 셈이다.

평양냉면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함흥냉면

함흥냉면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다. 원래는 농마(녹말) 국수라 부르던 것이다. 개마고원의 감자 전분으로 뽑아낸 가느다란 면을 쓰고 명태나 가오리 회를 꾸미로 얹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중구

오장동에 정착하며 당시 서울에 유행했던 평양냉면에 대응해 함흥냉면이란 이름을 얻었다. 이외에도 해주냉면이 뿌리인 양평 옥천냉면, 백령도 냉면 등 다양한 구성의 냉면이 입맛을 대물림하고 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즐겨 먹는 막국수와 구성 요소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냉면이라고 하면 보다 고급스러운 재료와 담음새로 차리는 게 일반적이다.

K-pop의 인기를 이어갈 K-냉면

냉면은 메밀이 아니라 칡이나 야콘 등의 전분을 섞어 면을 뽑기도 하는데 전통식 냉면으로 치지는 않지만, 따로 마니아층을 둘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꽤 인기가 있다. 부산 밀면 역시 마찬가지다. 메밀 대신 밀을 써서 만든 밀면은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저렴한 가격 덕에 넓은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냉면의 인기는 독보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주식으로 먹는 차가운 면 요리가 드문 탓이다. 중국 냉면(량판몐)이나, 샐러드 형태로 제공되는 이탈리아 파스타가 정도가 있을 뿐이다.

특히나 일본인들이 냉면 앞에서 환호성을 지른다. 맵지 않고 심심하면서도 구수한 육향에 그들이 열광하는 메밀이 주성분인 까닭이다. 일본 각 도시에서 냉면을 파는 한식당이 인기를 얻으며 'K-냉면' 시대가 열렸다. 벌써 따가운 햇살 아래 즐기는 초여름 냉면이 두둥실 떠버린 입맛을 되살린다. 딱 기분 좋은 더위다.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②

-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교정기관의 변천과정
 - 2. 교정공무원 특성
 - 3. 관련변수에 대한 논의
 - 4.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 2. 연구가설의 검증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인치견*

-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18)을 수정·요약한 것임 / E-mail: mail24@korea.kr

IV. 연구결과

1.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별 차이

(1)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탈진감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직무탈진감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성별, 결혼상태, 종교, 흡연상태, 음주상태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1명으로 나타나 scheffe 검증을 할 수 없어서 이를 5년 미만(a)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흡연상태별 직무탈진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흡연(a)을 하는 집단의 직무탈진감은 비흡연(b) 집단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교정공무원의 나이별 직무탈진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0대 (c)집단의 직무탈진감이 30대(b)와 50대 이상(d) 연령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는 결혼상태, 결혼기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환경 특성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상태 결혼기간은 Levene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나 직급은 Levene 통계량 2.487의 p값이 .043으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교정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직업윤리의식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b) 집단의 직업윤리의식이 미혼(a)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교정공무원의 결혼기간별 직업윤리의식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년 이상(f)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직업윤리의식이 미혼(a)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직급별 직무몰입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6급

〈표 4-1〉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탈진감의 차이

연구변인	응답집단	Levene 통계량(p)	N	M	SD	t/F(p)	scheffe
흡연상태	흡연(a) 비흡연(b)	2.827 (.094)	98 228	2.7895 2.5960	.49444 .56532	2.940 ** (.004)	
나이	20대(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합계	1.244 (.294)	7 106 127 82 322	2.9196 2.5665 2.7997 2.5064 2.6508	.58152 .57081 .56860 .43960 .55371	6.621 *** (.000)	c>b,d
결혼기간	미혼(a) 5년 미만(b) 5~10년 미만(c) 10~15년 미만(d) 15~20년 미만(e) 20년 이상(f) 합계	.358 (.877)	94 27 48 43 34 81 327	2.7737 2.5929 2.5703 2.7674 2.7114 2.5064 2.6554	.59469 .53775 .51678 .51743 .61834 .47379 .55105	2.854 * (.015)	-
직급	9급(a) 8급(b) 7급(c) 6급(d) 5급 이상(e) 합계	.961 (.429)	44 68 179 33 2 326	2.6302 2.7170 2.6861 2.4192 2.0625 2.6542	.58178 .58771 .52659 .52337 .08839 .55144	2.511 * (.042)	-
재직기간	5년 미만(a) 5~10년 미만(b) 10~15년 미만(c) 15~20년 미만(d) 20년 이상(e) 합계	1.120 (.347)	50 51 57 47 117 322	2.5673 2.6422 2.7237 2.8564 2.5605 2.6466	.60854 .52754 .50416 .60888 .49183 .54401	3.112 * (.016)	d>e

N=빈도, M=평균, F=통계량, SD=표준편차, scheff=사후점검

*P<.05 **P<.01 ***P<.001

(d) 재직집단의 직무몰입이 8급(b) 재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정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직무몰입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0년 이상(e) 재직집단의 직무몰입이 5~10년 미만(b), 15~20년 미만(d) 재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안녕감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직업안녕감의 차이를 t-test, ANOVA분석을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흡연상태별 직업안녕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정공무원의 직급별 직업안녕감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응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08 ~.807까지 분포하고 있다. 연령과 재직기간 간에는 .794, 직급과 재직기간 간에는 .807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7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를 VIF검사와 공차한계로 추가 확인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고,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여자=0, 남자=1이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r=-.401$, $P<.001$), 직무몰입($r=-.387$, $P<.001$), 직업안녕감($r=-.670$, $P<.0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r=.301$, $P<.01$), 직업안녕감($r=.552$, $P<.001$),

〈표 4-2〉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의식의 차이

연구변인	응답집단	Levene 통계량(p)	N	M	SD	t/F(p)	scheffe
결혼상태	미혼(a) 기혼(b)	.001 (.974)	74 248	3.3423 3.6142	.56191 .53441	-3.796 *** (.000)	-
결혼기간	미혼(a) 5년 미만(b) 5~10년 미만(c) 10~15년 미만(d) 15~20년 미만(e) 20년 이상(f) 합계	1.488 (.193)	94 27 48 43 34 80 326	3.3652 3.6049 3.6111 3.5698 3.6471 3.6563 3.5491	.62043 .60761 .54583 .51208 .47315 .54973 .55044	3.223 ** (.007)	f>a
직급	9급(a) 8급(b) 7급(c) 6급(d) 5급 이상(e) 합계	2.487 (.043)	44 68 179 33 2 325	3.4129 3.5147 3.5484 3.5346 4.0000 3.5497	.56661 .56335 .55346 .41694 .00000 .55044	2.684 * (.032)	-

N=빈도, M=평균, F=통계량, SD=표준편차, scheff=사후점검

*P<.05 **P<.01 ***P<.001

〈표 4-3〉 직무몰입(1모형)과 직업안녕감(2모형)에 대한 영향요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1모형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F(p)	Adj -R ²
	B	SE	β	TOL				VIF		
(상수)	2.583	.358		7.209	.000					
나이	.043	.065	.054	.658	.511	.370	2.702		14.713 *** (0.000)	.207
학력	-.012	.040	-.016	-.299	.765	.930	1.075			
직급	-.027	.064	-.036	-.413	.680	.339	2.951			
재직 기간	.028	.047	.065	.594	.553	.212	4.708			
직무 탈진감	-.355	.065	-.300	-5.489	.000	.843	1.186			
직업 윤리 의식	.294	.065	.252	4.511	.000	.806	1.241			

1모형 종속변수: 직무몰입 Durbin-Watson 1.394

2모형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F(p) F(p)	Adj -R ²
	B	SE	β	TOL				VIF		
(상수)	3.650	.189		19.273	.000					
나이	.041	.035	.073	1.190	.235	.369	2.709		68.796 *** (0.000)	.562
학력	-.009	.021	-.016	-.411	.682	.930	1.075			
직급	.070	.034	.132	2.073	.039	.338	2.956			
재직 기간	-.084	.025	-.274	-3.391	.001	.212	4.723			
직무 탈진감	-.449	.034	-.533	-13.163	.000	.842	1.188			
직업 윤리 의식	.280	.034	.336	8.106	.000	.805	1.242			

2모형 종속변수: 직업안녕감 Durbin-Watson 2.055

*P<.05 **P<.01 ***P<.001

학력($r=.131, P<.05$), 직급($r=.15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탈진감($r=-.401,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업윤리의식은 투입변수 중 직업안녕감, 직무탈진감, 직무몰입, 직급, 학력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직무몰입은 직업윤리의식($r=.364, P<.001$), 직업안녕감($r=.436, P<.001$), 연령($r=.122, P<.05$), 직급($r=.118,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탈진감($r=-.387, P<.0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몰입은 투입변수 중 직업안녕감, 직무탈진감, 직업윤리의식, 연령, 직급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직업안녕감은 직업윤리의식($r=.552, P<.001$), 직무몰입($r=.43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탈진감($r=-.670, P<.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안녕감은 투입변수 중 직무탈진감,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직무몰입($r=.122, P<.05$), 직급($r=.639, P<.001$), 재직기간($r=.794,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171, P<.01$)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이는 재직기간, 직급, 학력,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직업윤리의식($r=.131, P<.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령($r=-.171, P<.01$), 직급($r=-.113, P<.05$), 재직기간($r=-.199,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력은 재직기간, 나이, 직업윤리의식, 직급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직업윤리의식($r=.156, P<.01$), 직무몰입($r=.118, P<.05$), 연령($r=.639, P<.001$), 재직기간($r=.807,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113, P<.05$)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급은 재직기간, 나이, 직업윤리의식, 직무몰입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연령($r=.794, P<.001$), 직급($r=.807,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r=-.199, P<.001$)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직기간은 직급, 나이, 학력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3) 가설검증을 위한 사전분석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독립변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에 추가하여 회귀 분석 시 VIF검사와 공차한계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수가 직무몰입인 1모형에서 직무몰입의 영향요인들은 VIF값이 1.075 - 4.708에 분포하고 있어 10 이하이고, 공차한계 Tolerance Limit 가 .212 - .930으로 .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Durbin-Watson 결과를 보면 1.394로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의 통계량이 .032이고 이에 대한 p값이 .200으로 각 직무역량 점수의 오차들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정규성이 만족되었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다. CDI>1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관측 값으로 해석하여 제외되었으며, 1모형에서 CDI는 .000-.077에 분포하고 있어 극단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직업안녕감인 2모형에서 직무몰입의 영향요인들은 VIF값이 1.075 - 4.723에 분포하고 있어 10 이하이고, 공차한계 Tolerance Limit가 .212 - .930으로 .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Durbin-Watson 결과를 보면 2.055로 독립성이 충족되었고,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의 통계량이 .051이고 이에 대한 p값이 .044으로 각 직업안녕감 점수의 오차들은 모두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았다. 2모형에서 CDI는 .000-.087에 분포하고 있어 극단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beta = -.393$ ($p=.000$)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형적합도 F(p)는 12.789(.000)로서 적합하였으며,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의 15.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beta = -.655$ ($p=.000$)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업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형적합도 F(p)는 56.939(.000)로서 적합하였다.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의 46.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의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효과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가

〈표 4-4〉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투입 변수	비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F(p)	Adj -R ²
	B	SE	β			TOL	VIF		
(상수)	4.775	.142		33.595 .000	Durbin-Watson=2.036				
나이	.056	.038	.099			1.466	.144		
학력	.016	.023	.028			.674	.501		
직급	.107	.037	.201			2.873	.004		
재직 기간	-.097	.027	-.315			-3.549	.000		
직무 탈진감	-.554	.035	-.655			-15.863	.000		

a 종속변수: 직업안녕감

*P<.05 **P<.01 ***P<.001

〈표 4-5〉 분석결과 정리

가설	하위가설	가설내용		가설검증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2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3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됨	
가설3-1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Sobel test 결과 Zab값이 -3.8085***으로서 p<.000 수준의 절대값 3.30 이상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3)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의 직무탈진감과 직업안녕감 간 매개효과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과 직업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직업윤리의식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ron과 Kenny가 제안한 4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

1단계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beta = -.372(p=.000)$ 으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4-1이 지지되었다. 3단계 직업윤리의식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334($p=.000$)로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2가 지지되어서 분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2단계에서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beta = -.655(p=.000)$ 로 유의미하고, 4단계에서 매개변수 통제 시,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beta = -.530$ 의 p값이 .000로 여전히 유의미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직접적인 감소효과도 있지만 직업윤리의식을 매개로 직업안녕감이 감소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

Sobel test 결과 Zab값이 -5.3327***로서 p<.000수준의 절대값 3.30 이상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교정공무원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범죄자들을 수용, 관리하고 교정교화를 통하여 수용자를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통해 재범의 방지를 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처우하는 과정에서 직무탈진감을 경험하게 되며 그 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과도한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개인문제에서 더 나아가 조직과 국가적 차원에서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을 통제한 후 직무탈진감 정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쳐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즉,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어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업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원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을 통제한 후, 교정공무원 직업윤리의식이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 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1단계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3단계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여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이 지지가 되어 분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본 선정에서 경인지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중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범

위를 넓혀 전국의 교정기관 교정공무원들을 표본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직무탈진감이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의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구결과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장문화의 직무탈진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일반 성격과 다른 성격장애가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24시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감독기능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의 이원적 업무로 인해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높은 직무탈진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개인특성 요인에서는 나이와 직급이 높을수록 소진의 영향과,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냉소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 차이에서 직무수행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무탈진감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탈진을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개인의 성취감을 높이며 직장 내 비인간적인 관계와 갈등들을 예방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교정 현장 근무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 직무탈진감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함의를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직무환경과 근무 여건이 수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동기 저하와, 직무탈진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직무탈진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사점은 깊고 폭넓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한 위계질서는 겉으로 보여주기 식의 형태로 보여 질 수 있고, 단기적 성과주의에 치중한 교정교화와 보안이 갖는 양면성의 불일치는 직무탈진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직무탈진감이 교정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수용자 관리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교정조직의 수용자 처우와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위의 연구는 경인지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객관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전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답만을 요구하는 설문지법의 한계점이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일정시점에서 1회에 걸쳐 횡단적 연구를 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 유용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용자를 단순히 지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현장 근무자들이 수용자 계호와 교정교화라는 이중적인 임무여부로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해소하고 수형자를 교정교화하는 적극적인 임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교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낮은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교정행정과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보도나 영화·드라마 등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교정본부와 법무연수원에서는 연령과 수준에 맞춘 '교정홍보 표준 강의안'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전국 각 교정기관에 '교도관 일일교사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로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한다면 교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라는 청소년들과 일반 국민들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도관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교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교정본부 NEWS

2022 • June Vol. 553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 일자** 5. 12.(목) 부산교도소 / 5. 13.(금) 부산구치소
참석 교정본부장, 사회복귀과장 등
주요 내용 현황 보고, 현장 점검, 직원 간담회 등

각 지방교정청 법무호송팀 신설 운영



추진 배경
수용자 이송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정청별 법무호송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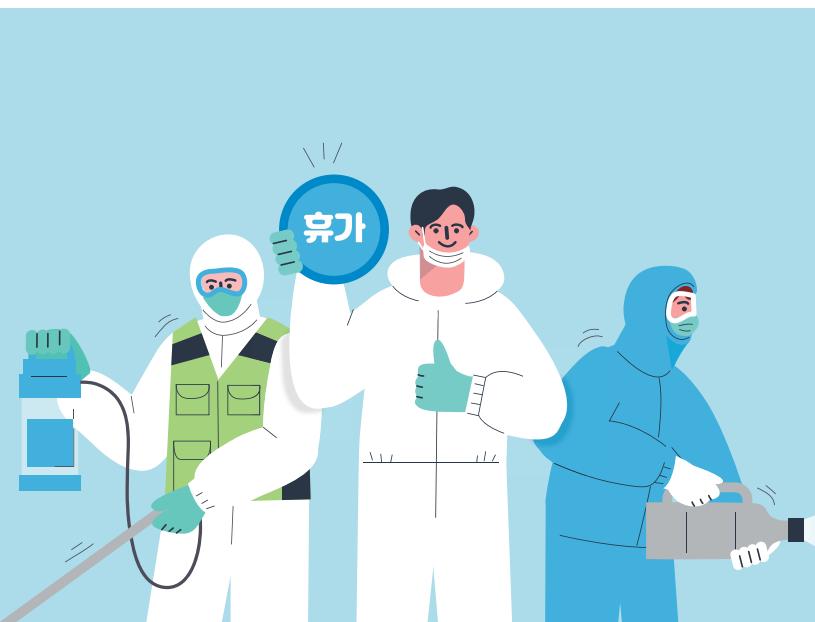
주요 내용
각 지방교정청 보안과에 법무호송팀을 신설해 2022. 5. 9.(월)부터 소속 기관 모든 이송 전담 실시
※ 대표기관(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 근무
운영 인원 : 67(8)명
※ 서울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 21(3)명, 광주지방교정청 14(1)명, 대전지방교정청 11(1)명

교정위원의 날 행사



- 일자** 5. 11.(수)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 5. 12.(목) 부산교도소
참석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등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및 교정본부장 격려 말씀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정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추진 배경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및 격려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성과, 공로에 따라 1~3일의 휴가 부여

교정기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 June Vol. 553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전출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5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전출 직원 신고식을 가졌다. 신경우 청장은 전출 직원들에게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같은 마음으로 일선에서도 열정적으로 근무하길 바란다”며 맡은 업무에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구치소는 5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성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참여,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정책현장 방문

권중각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은 5월 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과밀 수용 해소 및 노후 시설 현대화 등 교정기관의 예산 관련 현안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권중각 법사예산과장은 업무 현황 파악 후 시설을 둘러봤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스승의날 표창장 수여

수원구치소는 5월 13일 스승의날을 맞아 직장 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보드미 어린이집 이상희 원

장과 선생님들은 평소 남다른 사명감으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힘써 왔다. 서호영 소장은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봄맞이 환경 정비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 직원이 직접 나서서 민원실 및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 정비를 통해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했다.

인천구치소 / 교사 이남웅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인천구치소는 5월 12일 인천적십자 혈액원과 협조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으며,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설치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23일 구로구청과 협의해 보라미체육관 앞에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무인 대여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및 민원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졌고,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통한 건강 증진을 실현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제희

청렴문화 확산 계단 조성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8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청사 내 청렴계단을 만

들었다.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공모했으며, 이 중 선정된 표어로 청렴계단을 조성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법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5월 12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점검했다. 이후 경기북부 법조타운 예정 부지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육군 대대장 등 현장 참관 실시

여주교도소는 5월 26일 육군 제3901부대 2대 대장 등 3명의 현장 참관 자리를 마련했다. 육군 3901부대 2대대장은 “교정행정의 발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최진규 소장은 “지역 주민 및 사회에 기여하는 교정 기관이 되겠다”고 답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5월 4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 관리 체제 시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인쇄 작업장,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종교 집회 실시

춘천교도소는 5월 3일 수용자 처우 정상화에 따라 대강당에서 기독교 집회를 시작으로 종교 집회를

실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용자 76명이 참석했으며, 고위험군 중점 관리 수용자는 인성교육실에서 비대면 영상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보라미 도서관 개관식

원주교도소는 5월 26일 도서관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팀사무실 이전을 통해 생긴 공간을 리모델링해 새로이 도서관 마련한 것이다. 박진홍 소장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치하하며 “수용자들이 독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수용자 가소투표 실시

강릉교도소는 5월 25일 수용자 74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수용자들은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한 표의 권리행사를 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찰

영월교도소는 5월 16일 고경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시찰을 맞이했다. 이 날 시찰에는 고경순 검사장, 영월지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고경순 검사장은 손용대 소장 및 각 과장들과 함께 구내 시설을 돌아봤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불우 노인 수용자 보관금 지원

강원북부교도소는 5월 6일 교정협의회가 불우 노인수용자에 대한 보관금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

라 수용 생활 중 가족 등과 교류가 단절된 고령 수용자를 선정해 보관금 지원 행사를 가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수용자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5월 6일 평택시로부터 고유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았다.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주소지를 같이 쓰면서 우편물 오배송, 민원 안내 불편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기관 고유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해소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퇴직 교정공무원 현장 참관 실시

소망교도소는 5월 17일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현장 참관을 진행했다. 퇴직 공무원들은 평생 몸담아 왔던 교정 현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간직한 채 소망교도소를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으며, 교정 선배로서 격려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광민

지역 봉사활동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정기화된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관심을 드릴 기회가 생겨 기쁘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서로 돋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교도작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구교도소가 5월 20일 2021년도 교도작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실에서 열렸으며, 대표로 참석한 대구교도소 직업훈련과장은 유병철 교정본부장으로부터 표창패 및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대구교도소는 앞으로도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유병철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5월 13일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 점검 및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힘든 시기에 전 직원들이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해줘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해 포항불교교화 위원회로부터 수용자들에 게 밟은 기운을 전하고 싶은 뜻과 함께 띠 1,700 개를 기증받았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수용자 물품 기증

창원교도소는 5월 6일 박윤규 교정위원으로부터 생돈육 350kg을 기부받았다. 오세홍 소장은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공로로 박윤규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유병철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5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 위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전달했다. 또한 정책현장을 둘러본 후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5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정기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 June Vol. 553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청렴위원회 개최

진주교도소는 5월 13일 2022년도 제1회 진주교도소 청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강사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대구구치소는 5월 18일 2분기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원, 조리원, 시설 관리인 등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방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소방 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1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했다. 김광희 소장은 “화재 발생 매뉴얼을 숙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직원 월례회 개최

안동교도소는 5월 3일 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월례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조치 사항, 안동교도소의 비전과 상징색, 음주운전 근절과 수용자 폭행 금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퀴즈를 풀며 경품 추첨의 시간도 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조영준

소방 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10일 산불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근처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불이 교정시설까지 번지고 동시에 직원 1명

이 연기 질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배경식 소장은 “전 직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9일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앙통제실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문화예술반 소년 수용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직원 간담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4일 영양사 및 조리원의 업무 피로 해소를 위한 대화 자리 마련했다. 김진은 영양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리원과 영양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청렴캠페인 행사 실시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 날을 기념하여 울산의 대표 캐릭

터 울산큰애기와 함께 지역의 청렴 문화 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탐방을 마친 직원들은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앙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청렴 어깨띠를 매고 시장 내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청렴을 홍보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수용자 물품 기증

경주교도소는 5월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국사 자원봉사단에서 수용자를 위해 빵과 음료수 등 기증품을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서보균 소장은 “불국사자원봉사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수용자에게 기증해 준 것에 감사표하며,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백신 4차 접종 실시

통영구치소는 5월 19일 60세 이상 수용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수용자 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60세 이상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감염 취약 시설인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령 수용자의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양성평등 직원 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5월 10일 양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다양한 영

상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흥미를 높이고,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소방 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5월 3일 지진 대피 및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교정이송전담반 전입 직원 신고

대전지방교정청은 5월 4일 교정이송전담반 직원 교감 석명업 등 5명에 대한 신고식과 환대 행사를 실시했다. 청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임용식에서는 꽃다발과 덕담 주고받았으며, 교정이송전담반이 원활하게 임무에 임하기를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민원인 화분 선물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접견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 가족에게 화분과 감사 카드를 선물하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보라미 준법교실 시행

청주교도소는 5월 18일 흥덕구 소재의 경덕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했

다.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법질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교정공무원과 교정시설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소방 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5월 11일 코로나19 발생 후 실시했던 도상 및 영상 훈련에서 벗어나 모의 화재 상황을 설정 후 수용자 대피, 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의 훈련을 실시해 수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위 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 진압 능력을 강화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도주자 발생 자체 훈련 실시

충주구치소는 5월 16일 교정시설 내 출역 중인 수용자의 도주 사건 발생을 가정해 도주 사고 대비 예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 사고 발생에 따른 각 부서 및 개인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실제와 같은 상황을 모의로 연출해 실제 도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류동수 소장은 “전 직원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수용자 독후감 대회 실시

홍성교도소는 5월 18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독서의 일상화 장려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수용자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편의 작품을 응모 받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7명을 선정해 표창 및 교화 지원금을 수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수용자 물품 기증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개방교도소 기능 전환에 따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증품을 전달받았다. 기증품은 수용자

교정기관 NEWS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설치될 900만 원 상당의 신형 TV 등이며, 수용자가 명랑하고 쾌적한 수용 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5월 3일 수용자 기부품 전달식을 가졌다. 서산불교연합회는 이날 수용자를 위한 오렌지 300개, 떡 300개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2일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외부 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부정 청탁 대응 및 처리 절차, 갑질 행위 대응 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교정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26일 전주시 그랜드힐스 던호텔에서 2022년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유공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표창 행사를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

광주교도소는 5월 3일 광주여자대학교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강사로 파견된 이현주 부소장은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수용자 물품 기부

전주교도소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교정협의회 불교 종교 분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지

급할 백설기 1,300인분을 기부받았다. 진성 스님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시설 개선공사 실시

순천교도소는 5월 20일 수용자 자치 처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시설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기결5·6동을 리모델링해 공동 식당, 시청각실, 독서실,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고 상위 처우급 수용자 자치 처우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자체 소방 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5월 19일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수용자 대피, 효과적인 화재진화, 단계별 대응 방안 등 자위소방대 협동훈련을 통해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철저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전남도민체전 출전 지원 격려

목포교도소는 5월 20일부터 4일간 전라남도 순천에서 개최된 ‘제61회 전남도민체전’에 무안군 유도 대표로 출전한 김성규 교위를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실시

해남교도소는 5월 11일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10주간 주 1회 진행된 클리닉을 통해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겠다”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제공되는 기념품을 받아 가족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교도소 / 교위 이철우 보라미 준법교실 시행

제주교도소는 5월 12일 오현중학교 1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시행했다.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야간 응급환자 출동 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5월 9일 야간 응급환자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으로 교정기관, 외부 의료 시설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야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했다. 또한 직원들의 긴급 상황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위승현

위승현 교감은 30여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교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동료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등 타의 본보기가 됐다. 수용관리1팀 취사장 근무자로 부식 관리에 노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시로 취사장을 소독하고 청소함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교정공무원 무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김민진

김민진 교위는 임용 후 15년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자 관리에 힘쓰는 등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돼 왔으며, 매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당직2팀 근무자로서, 새로 입소한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지퍼백을 발견하고 즉시 수거 후 보안과에 보고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전기운영주사보 이창우

이창우 전기운영주사보는 2019년 5월 교정본부 최초로 소 내 라이다를 시범 설치했으며, 2007년 도입된 전자 경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현대화 사업 예산을 확보해 중앙통제실 리뉴얼로 물적 계호 현대화를 도왔다. 또한 운전직 근무자의 부족으로 외부 의료 시설 진료, 관내 출정 지원 등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으로 운전 업무에 나섰으며, 계호 인력 부족 시 외래 작업인을 직접 계호하여 인력 운영 효율화에 솔선수범했다.



군산교도소 교감 김종희

김종희 교감은 1991년 군산교도소에 처음 임용된 후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군산교도소 교정 행정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보안 배치 업무를 맡아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특성을 파악해 공정하게 근무를 배치함으로써 직원 회합을 이끌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나아가 남다른 사명감으로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교정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다.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신고자는 비밀·신분 보장, 신변 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신분 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 회복 등 적절한 조치

신변 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책임 감면 및 벌칙 제도

- 부패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에게 신고 사건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여행으로 일상을 골목을 경험을 자연을 재생하기

6.2.-6.30.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만으로
멈춰있던 대한민국이 되살아나니까
이번 달엔 당산면의 여행을 재생해보세요



신고 사건 처리 절차

- 1 신고 접수
- 2 신고 사실 확인
담당 조사관 배경(60일, 연장 가능)
- 3 이첩·송부
수사 기관, 감독 기관 등
- 4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기관 → 신고센터
- 5 신고 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 → 신고자

신고 방법

[신고 상담 및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 인터넷:
www.clean.go.kr 청렴포털 → 신고하기 → 부패·공익 신고
- 팩스: 044-200-797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요령]

- 신고자 인적 사항 기재(익명 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금 **여행가는 달** 을 검색해보세요



교정동우회가 퇴직 교정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연혁

- 2013. 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 교정 발전에 기여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 선진화 등 공익 실현
-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등

조직

- 임원진: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 지회: 36개 지회 (1특별회 포함)
- 회원: 정회원 3,500여 명 (명예회원: 현직 교정공무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사항

-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 강화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 출판 및 판매업 등 수익 사업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 강화 및 봉사 활동 사업 등

전국 각 지회 현황

2022. 6.

지역별	지회별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사무국장
서울	서울	안승용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조경종
	동부구	김태욱		부산강서	전준석
	남부구	황구연		창원	주강돈
	남부교	김범남		진주	조광래
인천 경기	안양	진정화	대전 충청	울산	공정술
	인천	양한용		대전	김영복
	수원	김용철		천안	양해문
	평택	구자현		공주	오재성
	의정부	김왕윤		홍성	편장범
강원	춘천	홍병걸	전북	청주	최락서
	원주	정병석		전주	이수복
	강릉	이선대		군산	김형섭
대구 경북	대구	최진호	광주 전남 제주	광주	이성재
	대구구	이영준		목포	최운기
	안동	장재덕		순천	조점기
	김천	김진홍		제주	신원식
	경주	박석준		장흥	이상실
	청송	최용수		서울	특별회 송영삼

* 지회 사무국장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로 생략했습니다.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의 총무과(서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문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전국 지역별 각 지회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서무 담당)에 문의

